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원 지급

부안군은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원을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비 쌀직불금은 관내 쌀 재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150농가, 1만 2953ha 면적에 군비 7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1ha~0.5ha 경작자에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0.51~5ha 경작자에게 ha당 57만원, 5.1ha~30ha 경작자에게 ha당 43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연초에 군비 쌀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영농의욕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상습 도박장소 순찰 강화

고창경찰서(총경 태기준) 모양지구대(경감 황문주)는 최근 도박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상습 도박신고가 접수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단속 위주의 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을 매일 직접 방문해 도박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준법 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모양지구대는 도박이 개인의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가정불화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순찰을 통해 도박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신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힘썼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순찰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 고강도 재정 혁신·예산 절감해 재원 확보... 지역 소비 촉진·민생경제 활력 '기대'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지난해에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시민들에게 환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

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14세 이하 아동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단,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 방지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위해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자동 환수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전입 혜택 강화... 최대 50만원 지원

### 전입지원금 15만원에서 대폭 인상... 정읍사랑상품권 앱으로 지급

정읍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전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전입 시민이 정읍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1차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6개월을 더 거주할 경우 2차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최소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시대 흐름과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앱 충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낮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지류형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을 병행,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금액과 변경된 지급 방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시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전입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8학기 최대 400만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20L 최대 10매)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입지원금 확대와 지급 방식 개선이 정읍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읍시에 오길 참 잘했다'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시정 참여하고 용돈도 벌고"... 정읍시, 청년참여포인트제 혜택 강화

### SNS 시정홍보 등 활동 실적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50만원 지급

정읍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시정 홍보나 행사 참여만으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활동을 지원하고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활동 분야는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시정 홍보부터 시가 주관하는 각

종 행사나 교육 참여, 청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공간 이용, 지역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시는 연간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해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월 최소 지급액 미달 시 포인트를 다음 달로 이월하던 규정을 폐지해 소액의 포인트라도 적립 즉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가입 희망하는 청년은 최초 1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활동에 따른 포인트 적립신청서는 활동 시마다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서류는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담당자 이메일(tpdud13557@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봉준장군 탄생 제170주년 기념행사 성료

### 전봉준 장군 일대기 영상·뮤지컬 공연 등... 동학혁명 가치 재조명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가 지난 10일 오전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제1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기념사업회 및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포함한 군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전봉준 장군의 탄생과 무장기포까지의 일대기를 AI로 구현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번행사는 현수, 봉정, 봉주, 현화가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또한, '침묵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선보여 전봉준 장군의 결의를 느끼게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기백 이사장은 "고창이 낳은 위대

한 역사 인물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정신 자부와 평등 민권의 가치를 되새기며, 근대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봉준 장군께서 평생 염원하셨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의 고창에서 군민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전봉준장군 탄생을 기념 특별전이 개최돼 2025년 무장기포 예술작품 공모전 수상작 15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범화, 농산물 판매 상생협약 맺어

### 5월부터 오창휴게소서 특판 시작...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협력 다짐

전북 고창군이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중인 (주)범화(대표 이영호)와 '고창군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과 (주)범화는 △고창군 농특산품의 판매 활성화 △고창군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 △고창군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휴게소 제품 판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주)범화가 운영하는 중부고속도로 내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 수박, 복분자, 멜론 등 시기별 주요 농산물 판매 행사를 통해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주)범화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전문기업으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 및 정송휴게소(상주방향, 영덕방향),



의왕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20여명의 임직원이 고객만족과 사회 발전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 매출액 약 450억원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기별로 출하되는 우수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확보 및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